

아저씨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법

이정범 감독의 '아저씨'

영웅의 탄생

영화 <아저씨>는 릭 베송 감독의 영화 <레옹>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채 전형적인 장르영화의 규칙을 따른다. 그것은 고독한 영웅의 존재와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버려진 아이와의 만남, 그리고 아이에 대한 특별한 돌봄 내지는 악당으로부터의 구원이 영화의 기본 골격이다. 여기에 주인공의 화려한 액션이 수를 놓으며 오락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동네 전당포를 운영하며 은둔생활을 하는 차태식(원빈)은 고독한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영웅의 자질은 그가 전직 국정원의 특수요원으로서 하가된 살인을 저지를 만큼 특별한 신분과 능력의 소유자란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 마약밀매 일당이 권총으로 위협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대담함을 보여주는가 하면 맨손에서 총칼 가릴 것 없이 다재다능한 살인기술을 구사하는 면모는 영웅의 남다른 자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웅이 모든 능력을 다 갖추어진 완벽한 존재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영화 <아저씨>가 5백만 관객을 넘길 만큼 대중적 관심을 모았다는 사실에서 새로운 영웅의 모습을 헤아려 볼 수 있어 야만 한다. 특별한 신분과 능력을 가진 영웅들은 영화 <슈퍼맨>에서 <판타스틱>의 유전자돌연변이 인간들에 이르기까지 이미 할리우드의 영화들 속에서 익숙할 만큼 충분히 보아왔다. 이들 인간 능력이상 초월적인 영웅들은 멋질 수는 있지만 친근감을 주는 매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와는 근본이 다르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아저씨>의 원빈은 다르다. 그는 변두리 동네 골목에 자리 잡은 전당포 주인으로 등장한다. 덩수룩한 머리에 잡바를 걸친 모습은 우리가 통상 갖고 있는 영웅의 이미지는 고사하고 잘 생긴 남자배우의 인상과도 거리가 멀다. 그 대신 서민적이며 친근하다. 어쩌면 원빈의 멋진 외모를 기대하고 영화를 보러온 관객이 있다면 초반부에는 크게 실망했을 만큼 그의 외모는 평범하다 못해 공색할 정도다. 거기다 아내와 자식을 잃은 상처받은 영혼의 소유자란 점은 관객의 동정을 쉽게 사는 것은 물론 원빈의 잔인한 공격성을 용인할 수 있도록 만든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처입고 은둔생활을 하는 작은 전당포 주인의 영웅적 변모는 유사한 액션영화의 구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비판 속에서도 나름대로 독특한 한국적 정서를 발산하며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서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친근한 구원자 아저씨

영화 <아저씨>는 강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함께 받고 있다. 긍정의 축 선상에는 주인공 원빈의 여린 듯 하면서도 강직한 이미지에서 뿔어져 나오는 액션연기가 놓여 있는 반면에, 부정의 축 선상에는 잔인한 폭력의 이미지가 자리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마저도 장기밀매의 대상으로 삼는 일당이 보여준 장기적출 상황은 충격적이고, 잔혹한 죽



음의 이미지를 생산해 내는 데는 선과 악이 따로 없다. 과도한 폭력묘사로 인해 두 번이나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던 <악마를 보았다> 못지않게 폭력을 동반한 죽음의 이미지는 화면 가득 넘쳐난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아저씨>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자극적이고 선정성을 더해 가는 대중문화 전반에 걸친 경향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미성년자들이 포함 된 걸그룹의 의상은 노출경쟁이라도 하듯 섹시함이란 이름으로 성적이미지를 발산하고 있는가 하면, 박찬욱 감독의 복수 삼부작(복수는 나의 것 올드 보이, 친절한 금자씨)이나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 이후 액션은 거칠어졌고 살인장면은 잔인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영화 제목처럼 아저씨의 특별한 역할에 있다. 사전적 의미로 아저씨란 이름을 알지 못하고 특별한 인척관계도 없는 중년의 남성을 친근하게 호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단지 이웃으로 알고 지낸 여자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영화적 설정으로 넘길만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관계의 기대감이 내재되어 있다. 아저씨와 어린 여자 아이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성폭행사건을 연상하기 쉬운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이 영화 속 아저씨로부터 보호와 구원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영화에는 액션을 통한 보호와 구원의 행위가 도드라져 보이지만 그 이전에 아저씨가 구원자와 보호자로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아이의 상황을 바로 읽는 일이었다. 내가 무심하게 지나쳤을 때 아이가 받을 고통과 상처에 대한 현실이해가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일으킨 것이다. 마약밀매에 연루되어 처참한 주검으로 변한 아이의 엄마를 목격한 주인공에게서 충격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신분노출을 꺼려하여 경찰관 앞에서 어린 아이를 부인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한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대는 약자를 도울 아저씨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의 무엇이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는지를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눅7:31-32)

글. 강진구(고신대 컴퓨터영상선교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이 글은 갯피플매거진 2010.10월호에 실린 글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 것입니다.

